

익산시, 총선용 공약 30건 발굴

12조 규모 미래 발전 이끌 공약 사업 모아 전달... 정치권 공조에 만진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전라선 고소화 사업 등 철도중심지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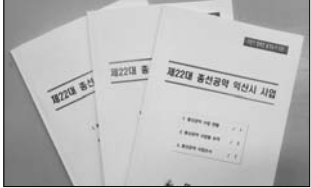
익산시가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지역발전 방안을 위한 공약을 모아 제안했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12조 1,592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관련 공약 30건을 익산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연구에 나선 끝에 6개 분야에 걸친 30개 공약 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사회간접자본(SOC) 12개 △농축산·식품 4개 △복지·보건 5개 △안전·환경 6개 △문화·관광 1개 △기타 2개다.

우선 시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궁리유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규모와 성격이 밝혀진 고대 궁궐유적이다. 하지만 국도 1호선 일부가 왕궁리유적 특별보존지구에 포함돼 있어 유적 연계 확장 발굴작업이 단절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백제왕궁이 국도 1호선보다 낮게 위치한 탓에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어 유물 훼손이나 유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문화재 복원과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을 시급한 총선공약 사업으로 제시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목록에 올랐다. 시는 익산역에서 전남 여수역까지의 고속열차 운행속도가 현재 120km/h에서 250km/h 이상으로 개선되면 호남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의 대규모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사업'과 '호남 일반선(익산~논산) 고속화 사업', '전북권 광역전철망(서들) 운영',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등도 함께 제안했다.

보건·안전 증진 관련 기반 시설 조성사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치유를 위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요구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소방심신수련원 2차 추가 건립 계획이 있는 만큼, 총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 직업훈련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서부권 국가재난 안전 거점센터 조성 등 보건·안전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시는 또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과 연계해 익산에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익산은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한 교통 요충지이자 신산업 혁신성장의 거점도시인 만큼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총선 공약집에는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 도시 건설의 꿈도 담겼다. 1948년 정부의 한센인 이주·격리 정책에서 시작된 무분별한 축산업 확장은 환경오염을 불러왔다. 축사 매입으로 오염을 멈추는 데 성공한 시는 이제 단절된 생태 복원에 나선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상임위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 등, 안내표지 설치와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감독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개방주차장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리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주차난 완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활동 나서

익산시가 올해도 시민의 다양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지난해 처리한 고충 민원 운영사항을 공유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 12건, '몸부짚고'와 '만남의 날'을 통해 1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따른 피해 원상 복구 요청, 추락위험 장소 가드레일 설치 등 고충·생활불편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농촌 등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소통민원 참여역할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도 지역 주민을 찾아가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한경수 감사위원장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이나 고충 등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충·생활불편민원을 상담받고자 하는 시민은 감사위원회 소명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설 명절 대비 682억원 신속 집행 '총력'

사회복지 분야 330억원 · 공사 · 용역 · 물품대금 91억원 등

익산시가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한 경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금 682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되는 자금은 사회복지 분야 330억원, 각종 공사·용역·물품대금

등 91억원, 경상적 경비 261억원이다.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지급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특히 명절 전 계약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 공사대금 뿐 아니라 기성금과 선금급에 대해서도 집행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시는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해 700여 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 방문과 차례상 준비 등 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큰 호응

익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익산시는 2013년 전북 최초로 시작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올해로 12년 차를 맞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는 체질에 맞는 한방진료를 통해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체내환경을 개선해 △반복적인 착상 실패 △난자·정자의 질 저하 △임신 유지가 안 되는 습관성 유산 등 여러 유형의 난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

년간 익산시가 지원한 한방 난임치료를 받은 부부 98쌍 중 22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아울러 참여자 만족도가 9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익산시는 남성 난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원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별에 따라 지원 한도여성 180만 원, 남성 50만 원)가 달랐으나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부부 한 쌍 기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 나이 기준은 만 44세 이하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설 명절 농산물 특판행사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과 모현점에서 지역 농산물 설 명절 기획전을 연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오는 2월 8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현점에서는 한돈 20%, 한우 30% 할인을 진행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입 고객에게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육류 등 성수품 10종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 가격상승 품목 12종이다. 다만 어양점과 모현점의 농산물 할인 품목이 일자별로 상이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